



현대차 7세대 '올 뉴 아반떼'.

현대차 '올 뉴 아반떼', 5년만에 7세대 귀환

사전계약 진행... 1531만원 부터

가솔린 1.6 MPI·1.6 LPi 2개 라인업
차급 넘어선 첨단 시스템 대거 적용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7일 출시를 앞둔 7세대 '올 뉴 아반떼'의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올 뉴 아반떼'의 주요 사양, 가격대를 공개하고 25일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뉴 아반떼'는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현대차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 ▲혁신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 ▲3세대 신규 플랫폼으로 향상된 안전성, 실내공간, 연비 효율 ▲차급을 뛰어넘는 최신 스마트 안전 편의사양이 집약된 상품성이 특징이다.

'올 뉴 아반떼'는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1.6 LPi 총 2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엔진은 연비 15.4km/L, 최고출력 123PS(마력), 최대토크 15.7kgf·M, ▲1.6 LPi 엔진은 연비 10.6km/L, 최고출력 120PS(마력), 최대토크 15.5kgf·M의 효율적인 상품성

을 완성했다.

또 '올 뉴 아반떼'에는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됐다. 현대차는 상위 트림 사양이거나 엔트리 트림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던 다양한 안전 사양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차량·보행자·자전거 탑승자·교차로 대향차)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차로 유지 보조(LFA)를 파격적으로 '올 뉴 아반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가솔린 모델 모던 트림 이상부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등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해 고객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

'올 뉴 아반떼'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 1531만~2422만원 ▲LPi(일반판 매용) 모델 1809만~2197만원의 범위에서 책정된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삼성 XM3.

르노삼성차 'XM3', 계약대수 1.6만대 돌파

최고급 트림 계약고객 85% 차지

르노삼성자동차의 프리미엄 디자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가 출시 15일 만에 누적 계약대수 1만6000대를 돌파했다.

2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XM3는 사전계약 시작(2월 21일)부터 일찌감치 인기몰이를 해왔으며, 단 12일만에 사전 계약대수 5500대를 달성한 바 있다. 이후 공식 출고 시점(3월 9일)까지 누적 계약대수 8542대를 기록했다.

XM3의 누적 계약대수는 총 1만 6000대이며, 그 중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개발한 신형 엔진 고성능 'TCe 260'이 전체 계약 중 89%를 차지했다.

전체 'TCe 260' 계약자 가운데 최고급 트림인 RE 시그니처를 선택한 고객

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RE 트림 계약자가 13%로 그 뒤를 이었다. '1.6 G Te'도 마찬가지로, 최고 트림인 LE 플러스를 선택한 고객 비중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실제 매장을 방문한 XM3 출고 고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XM3를 구매한 주요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2.8%의 고객들이 외관디자인을 꼽았다.

이어 합리적인 가격(21.4%)이 뒤를 이었는데, 주 고객층인 젊은 세대의 구매 결정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내장 재질과 10.25인치/9.3인치 디스플레이 및 앰비언트 라이트 등 실내 디자인(15.1%)과 첨단 사양(12.6%) 등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요소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EUV 노광공정 적용 D램 양산

(극자외선)

미세공정 한계 돌파... 성능·수율 ↑

1세대 10나노급 D램 모듈 생산
100만개 이상 고객 공급·평가
EUV활용 4세대 D램 기술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극자외선) 노광공정을 적용한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EUV 공정으로 생산한 1세대(1x) 10나노급 D램 모듈을 고객에 100만개 이상 공급하고 평가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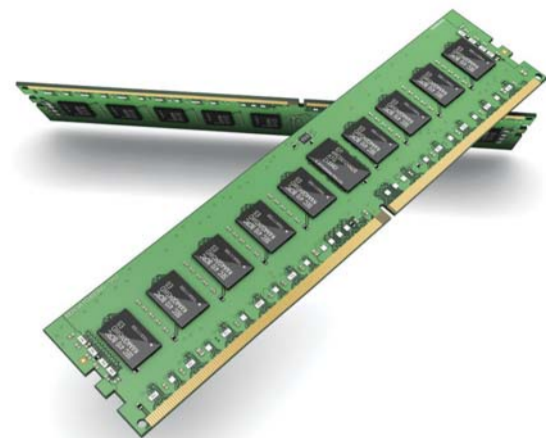
EUV 공정이 D램에 적용된 것은 업계 최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미세공정 한계를 돌파할 준비를 갖추고 D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UV 공정은 회로를 새기는 작업인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이면서도 정확도를 높여 성능과 수율을 높이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이용해 14나노 초반대인 4세대(1a) 10나노급 D램 양산 기술을 개발 중으로, 향후 차세대 제품 품질과 수율을 기존 공정 이상

D램 모듈.

/삼성전자



으로 향상할 예정이다. 특히 1a D램은 1x D램보다 12인치 웨이퍼당 생산성을 2배 높여 사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1a D램은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이후 차세대 제품들도 선행 개발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 이정배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D램 양산에 적용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한발 앞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내

년에도 혁신적인 메모리 기술로 차세대 제품을 선행 개발해 글로벌 I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평택 신규 라인을 가동하면서 차세대 프리미엄 D램 수요에 대응하는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DDR5/LPDDR5 D램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고객들과 협력 및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며 신제품 탑재 비중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코로나19·유가폭락... 사면초가에 몰린 정유업계

“정제마진 마이너스대, 비상경영 현실로”

국제 유가 폭락에 수요 ↓ 공급 ↑
현대오일뱅크 비상경영체제 돌입

국내 정유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1분기 실적 경고등이 켜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산업계 전반을 덮친 데 이어 정유사도 영향을 피하지 못한 탓이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며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산유국이 이달 잇따라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국제유가도 폭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한 것이다.

앞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10개 주요 산유국은 지난 6일 감산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그 여파로 WTI(서부텍사스산원유)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24.4% 폭락하며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만에



여수 정유·화학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달부터 일일 26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는 하루 100만 배럴, 러시아는 최대 50만 배럴을 증산하겠다고 발표해 당분간 '치킨게임'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정제마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간기준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3월 셋째 주 기준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1.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 기준 -0.2달러를 보인 이후 처음 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일일 기준 정제마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

익 악화를 드러냈다. 지난 16일 기준 정제마진은 -2.48달러였다.

국내 주요 정유사 가운데 현대오일뱅크는 가장 먼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은 급여의 20%를 반납하고 경비예산의 최대 70%를 삭감하는 등 비용 전반을 축소한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SK이노베이션, 에스오일, GS칼텍스 등 나머지 정유사들은 아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유업계의 전체적인 어려움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임금삭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하지만 워낙 업황도 안 좋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다보니, 일단 상황을 좀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화학, 美 배터리 공장 가동중단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가동 중단

LG화학의 미국 배터리 공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주 정부 지침에 따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을 오는 4월 13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앞서 미시간주 주지사는 23일(현지

시간) 핵심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주민들이 3주간 집에 머물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LG화학 관계자는 "전날부터 시민 자택 대기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필수 최소 인원만 남기고 가동을 제한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